

‘9급 公試’ 54점 합격·95점 탈락

〈공무원 시험〉

전남도 지방공무원 공채 시·군마다 합격점 격차 형평성 논란

방송통신직 최대 42.5점 차이 ... 지역제한 해제 등 보완 시급

‘공직 입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각 시·군마다 합격점에 서 지나치게 큰 격차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총점과 평균에서 최대 4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많은 이유 지역제한경쟁을 하는 일부 군에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외지인들이 가세하는 ‘이상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합격선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각 시·군별로 이 같은 합격점 격차는 결국 장기적으로 시·군의 역량과도 직결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2016년 제2회 전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 713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도는 1만2500여 명이 접수, 8440명이 응시해 11.3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이번 시험에서 74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군에서 과락(40점 이하)이 나오면서 합격자를 내지 못해 32명이 줄었다. 반면 일부 시·군에서는 과락 없이 90점 넘게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경우도 나왔다.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면서 시·군별로 정원을 정하고 과락이 나오지 않는 한 평균 또는 총점이 높으면 합격시키는 현재의 임용제도 탓이다. 따라서 ‘운’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같은 점수를 맞거나 그보다 더 낮은 점수를 맞고도 시·군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지난해 62점으로 합격선이 가장 낮았던 고흥 건축직 9급에는 2명을 선발하는데 11명이 접수, 9명이 응시한 결과 합격선이

평균 72.5점으로 10.5점이나 상승했다. 고흥은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과 함께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응시자로 시험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의 시·군은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내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전남에 거주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지난해 낮은 합격선을 보고 ‘실력자’들이 주소를 이전하고 도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건축직 9급 합격선은 곡성이 59점으로 가장 낮았고, 장흥(62점), 담양·해남(63점) 등이 하위권이었다. 목포(87점), 화순(73점) 등과 비교하면 10점 이상 차이를 보인 것이다. 완도의 경우 2명 모집에 9명이 응시했으나 과락으로 합격자가 없었다.

방송통신 9급도 영암에서는 53.5점이면 합격이지만, 광양시에서는 합격선이 96점으로, 그 아래는 모두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무려 42.5점의 격차다.

행정직에서는 광주근교권 시·군의 합격선이 단연 높았다. 화순이 총점 기준 391.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담양(389.42점), 나주(388.28점), 보성(387.97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제한으로 묶여 있는 진도(342.48점), 신안(358.51점), 완도(359.18점), 해남(368.97점), 고흥(380.20점) 등과 비교하면 10~40점 이상 차이가 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도·연료로 인해 섬지역에 대한 교통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지역제한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격선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공시족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무료 개장

17일 휴일을 맞아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8월21일(월요일 휴장)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조선훈 총장선거 갈등 최고조 ▶6면

꼬마 작곡가들의 작품 발표회 ▶17면

시대 밝힌 노래-3·15와 전우가 ▶18면

‘감투싸움’에 10일째 파행 민의 외면한 광주시의회

오늘 본회의...돌파구 찾을까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10일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민의 대변’ 등 본연의 역할은 뒷전으로 미룬 채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18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나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10일째 의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그동안 양측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오는 22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장을 뽑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기존 후보 등록이 취소돼 최악의 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또한, 주요 조례안 심의, 집행부 업무보고 등 현안 처리도 무산된다. 이처럼 파행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 정영진(48)씨는 “민의를 대변하라고 뽑아줬더니 자신들의 몫만 챙기기 위해 민의는 뒷전인 채 ‘자리싸움’만 하

고 있다”면서 “시민 혈세로 월급까지 받으면서 시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양 측은 파행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바지 협상에 나서고 있어 18일 원구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점이 됐던 의장 선거 방식은 양당이 조건없이 자유투표로 하자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총 7석 배분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주는 의석수(13대8) 비율에 따라 더민주 5석, 국민의당 2석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4대3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18일 본회의에서 파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는 더민주 조오섭, 국민의당 이은방 의장 후보간 살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으로 더민주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더민주 일부 의원들이 당론을 떠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행이 지속되어 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와 공평하게”

“범정부 TF 광주도 참여를”

범시민추진위 건의서 전달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공항 조기 이전’ 지시에 따라 대구공항 이전 작업이 정부 주도로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도 대구공항과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역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신원형)는 대구공항과 동일하게 광주 공항에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15일 국방부에 전달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지역의 폭 넓은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 출범했다. 시민과 관련단체, 전문가, 시의원, 시청 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대

구공항 조기 이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대구공항 통합 TF’를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의 경우 이러한 범정부적인 지원 TF가 없어 정부의 군 공항 이전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차별과 소외감이 없도록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구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대구공항 이전은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인 이후 하루 만에 관계부처 회의가 열리고 관련 TF가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

내년 최저 시급 6470원 ... 월급 135만223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협상에서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

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양측은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약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연합뉴스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